

# 호남 불교계, 설 맞아 온정의 손길

## 경로잔치·연탄 및 떡국 떡 나눔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호남지역 불교계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 자비행을 실천했다.

연꽃마을 자비원 대표 정인 스님이 이끌고 있는 한국노인복지봉사회 전주시지회는 2월 2일 전주 리원호텔 백제홀에서 암 환자 및 독거노인 100명을 초청해 경로 위안잔치를 열었다.

행사는 전주 수 한방병원의 건강상담과 아리랑 예술단의 위문공연, 나눔 위안잔치,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인 스님은 “자기를 깨닫는 것을 넘어 생활 속에서 어려운 주민을 돕는 것이 참다운 부처라는 생각이 1991년부터 지역의 어려운 노인 및 암 환자들을 보살피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행 생활과 더불어 몸과 마음을 깨끗이 닦아 참다운 불제자가 됨은 물론 사회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유공자 표창에서는 지역 노인복지 증진에 힘쓴 전수이·문동주·양재이 씨가 전주시장상을 수상했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선행을 실천한 김승혜(한별교 2)·권의현(기전대 2) 학생에게는 김성주 국회의원의상이 수여됐다.

또한 전주 시내 지역주민센터를 통해 추천된 독거노인들에게는 지역 내 독지가와 기관 등의 후원을 받아 건강식품과, 영양제, 생활필수품 등 4000만원 상당의 선물이 전달됐다.

경로 위안잔치에는 정인 스님, 소담불교박물관 장 범성 스님, 임현기 한국노인복지회 전북지부장, 임선영 전주 수 한방병원장, 이창승 리원호텔 회장, 송채욱 덕진구 사회과장을 비롯한 전주시 사회복지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선각종 올천사는 1월 29일 광주 남구 관내 저소득층 12가구에 자비의 연탄 3600장을 전달했다.

**암 환자·독거노인 초청 문화공연  
건강식품·영양제·생활필품 전달도  
저소득 겨울나기 돕는 자비행과  
명절음식 나눔으로 훈풍 불어넣어**

한편 정인 스님은 1996년에 효자동에서 의료기기와 편의시설을 갖춘 노인사랑방을 운영하며 독거노인과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다가 2002년부터 아리랑마을 자비원을 열고 노인과 무연고 아동 등을 보살피고 있다. 2011년부터 해마다 설과 추석, 어버이날 무렵 3~4차례에 걸쳐 100명의 불우이웃에 3000~6000만원 상당의 다기능 안마기와 건강기능식품, 쌀 등 생활필품을 전달해오고 있다.

대한불교선각종 올천사(총무원장 정암)는 1월 29일 최영호 광주남구청장, 이민수 광주불교방송 사장, 종단 임원스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비의 연탄 3600장을 남구 관내 저소득층 12가구에 전달

했다. 이날 전달한 연탄은 선각종 사회복지원에서 종도와 신도들이 온정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선각종은 올해 말까지 총 3만장의 연탄을 모아 광주 및 영암, 강진군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선각종은 앞서 28일에도 강진군 저소득 24세대에 연탄 3600장을 지원한 바 있다.

정암 스님은 전달에 앞서 “설날을 맞아 저소득 어르신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불자들의 마음을 모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각국사 선양회(대표 대현)도 1월 29일 화순군 13개 읍면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25세대에 떡국 떡 1100kg을 전달했다. 각 2.2kg씩 총 500박스가 후원된 전달식에는 대현 스님, 진각국사 선양회 회원스님을 비롯해 화순군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대현 스님은 “설날은 가족이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명절이다. 명절날 떡국을 통해 가족 간에 소중한 정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자연음식문화원, ‘맛있는 방학 COOK방’

## 초·중·고교생 올바른 식습관 위해

전북불교네트워크(공동대표 오종근) 부설(사)자연음식문화원(이사장 곽인순)은 1월 27일 전주 금암동 자연음식문화원 실습실에서 전주지역아동센터 이용학생들을 대상으로 ‘맛있는 방학(COOK방)’이란 주제로 자연음식체험전을 진행했다.

자연음식체험전은 인스턴트식품과 화학조미료에 입맛이 길들여진 아이들이 건강하고 맛있는 자연음식을 만들어 보는 체험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갖게 하자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날 1차로 진행된 수업에는 초·중·고교생 20여 명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연사찰음식인 느타리버섯 간풍기와 홍시 무생채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보냈다.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최승현(초5) 학생은 “자연음식과 사찰음식이라고 해서 입맛에 안 맞고 만들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체험해보니 학생들이 따라 하기도 쉽고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지는 몰랐다”며 “특히 버섯 간풍기는 집에서도 종종 만들어 먹고 싶고 남은 수업이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자연음식문화원은 1월 27일 전주지역아동센터 이용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연음식체험전을 진행했다.

설민자 전북지역 아동센터장은 “요즘 아이들은 배달 음식이나 햄버거 등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져 있어 영양 불균형이 많이 걱정됐다. 이번 체험에서 아이들의 입맛에 맞춘 자연음식과 사찰음식을 손쉽게 만들어 볼 수 있어 좋았다”고 고마움을 표시한 뒤 “만드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 앞으로 아이들이 집에서 직접 자연음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사)자연음식문화원이 주관하고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불교공부, 끝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 참좋은우리절, 불교대학 졸업식

전주 참좋은우리절 불교대학이 15기 졸업생을 배출했다.

참좋은우리절 불교대학(학장 회일)은 1월 31일 경내에서 15기 졸업식을 봉행, 정규반 14명, 경진반 10명 등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식에는 학장 회일 스님을 비롯해 지난 1년간 강의를 진행한 강사와 졸업생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양근 불자 등 14명의 정규반 졸업생들은 졸업식에 앞서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하고 신도봉계인 부동봉계를 품수했다.

회일 스님은 “졸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며 “나 중심의 분별을 떠나 연기와 공생의 도리를 바탕으로 공존을 지향하는 불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졸업식에서는 우수불자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시상식에서 지난 1년간 불교대학 전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남준우 불자가 조계



전주 참좋은우리절은 불교대학 졸업생 24명을 배출했다.

종 포교원장상, 송병철 불자가 학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졸업생들은 지정전 불사를 비롯한 참좋은우리절 불사기금으로 1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지난 2006년 9월 설립된 참좋은우리절 불교대학은 2011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 등록했으며 올해까지 총 31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복지사각지대 밝힐 지원사업 실시”

## 빛고을나눔나무, 상반기 사업계획

광주전남지역 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가 올해 복지사각지대를 밝히기 위한 지원사업을 펼친다.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연광)는 1월 28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2016년 상반기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여성단체(여성쉼터 및 미혼모시설) 지원사업과 네발 지진피해지역 학용품·어린이 약값·자전거 지원사업 등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공모지원 사업에 2000만원의 기금을 책정한다. 봉축행사 공모사업은 광주지역 불교단체가 스스로 다양 한 봉축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10개 단체가 신청했다. 단체별 지원금액은 추후 전문선정위원회를 통해 2월 중 확정된다.

청소년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나눔 경매를

통해 모인 기금과 후원금을 바탕으로 각 사찰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을 추천받아 우선 지원한다. 여성 지원사업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자활을 돕기 위한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의 워터 지원 및 미혼모 자립(분만·출산·숙식·아기용품 등) 지원 등에 나선다.

아울러 네발 지진피해지역에 대한 지속적 구호활동 일환으로 피해지역 학교에 대한 비품과 학용품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지병이 있는 어린이에게 약값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 불교 성지 거주 학생에 대한 지원도 눈에 띈다. 림비니 지역(영아)에 거주하는 학생들 중 통학거리가 도보로 2~3시간 되는 학생들에게는 자전거를 보급할 계획이다.

문영배 기획팀장은 “올해 지원방향은 불교단체 활성화와 지역사회와의 연대에 가장 큰 의미를 뒀다”며 “광주전남지역 불교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입춘기도 공덕 지역사회에 회향

## 금선사·비전사, 쌀 나눔 행사

입춘을 기념하는 자비나눔 행사가 광주에서 열렸다.

광주 금선사(주지 일명)는 병신년 입춘인 4일 대웅전에서 기도에 동참한 신도들이 시주한 쌀 2000kg과 100만원 상당의 동전을 광주전남 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연광)를 통해 광주지역 불교단체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쌀은 입춘기도에 불자들이 시주한 것으로 자비신행회, 광주외국인복지센터, 맑고향기롭게 광주모임,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 등에 전해졌다.

일명 스님은 “사찰은 이웃과 함께 행복한 삶을 가꾸어 나가는 곳”이라며 “입춘을 맞아 예년처럼 많은 신도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금선사는 4일 빛고을나눔나무에 쌀 2000kg을 전달했다.

한편 비전사(주지 보혜)도 입춘을 맞아 신도들이 모은 쌀 2000kg을 지역사회에 나누고, ‘자비의 발’ 모연으로 만들어진 300만원 기금을 소아암백혈병 환우 3명에게 전달했다. 5년째 이어진 자비의 발은 올해까지 2200만원을 모아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를 통해 총 22명의 환우에게 전달돼 환우들에게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행 스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그 일곱 번째 이야기

**마음 2016 다이어리**

한 손에 꼭 들어오는  
가볍고 편리한 형태로 새롭게 태어난  
2016 마음 다이어리에는  
대행스님의 법어와  
임효 화백의 그림을 함께 담았습니다.

내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고  
기록하며 가꾸어 가는 공간

마음 다이어리와 함께  
하루하루 변화해가는  
'나'를 발견해 보세요.

편보록 (재)한마음선원  
엮은록 한마음선원 편집실

판매 현대불교현물샵 02)2004-8216  
정가 10,000원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